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0호 【루계 제26044호】 주체107(2018)년 6월 19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이다.

절세위인들께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승리에로 향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특출한 령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령도하시게 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지난 수십년간 당건설과 혁명무력건설, 경제문화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과 특기할 사변들은 력사의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혁명적당으로, 필승불패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이 주체의 혁명적당,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한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이것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됩니다.》

혁명적당은 수령의 당으로 건설되여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이 중대한 위업은 걸출한 령도자를 모실 때에만 빛나게 실현된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참다운 수령의 당으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수령의 당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수령의 당건설의 진로가 밝혀지고 당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되였으며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대를 이어 고수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한 우리 당의 자랑찬 모습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이 비끼였으며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거대한 업적과 세계가 공인하는 높은 권위도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되여있다.

수령의 당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재보이며 이 불멸의 유산을 지침으로 삼고있는 여기에 조선로동당의 불패성과 양양한 전도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것은 주체적당건설사에 특기할 업적이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수령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사상리론들로 발전풍부화하심으로써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고 전당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빛내여나가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여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당조직과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전당이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움직이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풍모를 그대로 닮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천만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키는 령도적정치조직으로 위용떨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전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적들의 끊임없는 반혁명적공세를 짓부시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여왔다. 수령의 령도적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각급 당조직들과 전체 당원들의 높은 정치적각성과 비타협적투쟁에 의하여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확고히 보장되고 주체혁명의 명백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령도자를 유일중심으로 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일체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는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조국청사에 불멸할 업적이다.

참다운 수령의 당이란 혁명의 길을 개척한 수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수령의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당을 의미한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것도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후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에도 새겨져있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이기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투쟁이 장도높이 조직전개된데도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 무한한 헌신에 의하여 우리 당은 수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혁명적당으로 존엄떨치고 이 땅우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끝없이 흐르게 되였다.

지난 세기 90년대이후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일심단결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더욱 공고해지고 수령님의 강국념원실천에서 비약적전진이 이룩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수령의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자기 수령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당은 오직 조선로동당뿐이다. 우리 당을 수령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 수령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전투력있는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수령의 당,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당건설에 대한 령도는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을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100% 계승하며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장군님식대로 진행해나가도록 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심으로써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수령님들의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여나가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리정표따라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더 큰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감으로써 오늘의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에서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총적과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리론, 장군님께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 장군님의 유훈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모든 사업을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장군님식대로만 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우리 당을 영원히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대미문의 혐로역경을 헤치며 승리만을 떨쳐온 지난 6년간의 투쟁행로에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령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출위인상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최고령도자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철통같이 다져야 한다. 당대렬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과 뜻,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충정의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리며 당중앙의 높은 존엄과 절대적권위를 백방으로 보위하여야 한다.

전당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기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도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중시사상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나가는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며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하기 위한 당정책옹위전이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함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격동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펼쳐지는 승리와 영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갈길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길이라는것을 확고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잘해나가야 한다. 초급당위원회와 당세포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대중을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에로 직각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당정책의 운명은 우리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시대의 숨결이 높뛰는 참신하고 박력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이 최대로 분출되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대중을 조직동원

황해북도의 당조직들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올해농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당면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시, 군들에 나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총폭발시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도와 시, 군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최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더욱 깊이 심어주는 등 강연선전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정산군과 온파군을 비롯한 군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김매기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송호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작업반장, 기술원, 물관리공들과의 사업에 힘을 넣어 모든 영농공정들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도록 정책적지도를 짜고들고있다.

서흥군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총폭발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평산군당위원회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곡산군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농장들에 나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있다. 결과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상원군당위원회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고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도안의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하여 당면한 영농사업에서는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세포지구 발전소건설 힘있게 추진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에서

우리 나라의 풍부한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전력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세포지구 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수력발전소건설의 기간부대, 근위부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며 수십만㎥의 언제성토를 진행하고 언제바닥시추주입과 콰안심벽기초굴착속도를 종전보다 2배이상으로 끌어올려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동력기지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전투장마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로 떠들썩하게 하고 애국열, 투쟁열, 경쟁열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발전소건설을 무조건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일군들은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적극 앞세우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면서 건설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 기본공사대상인 방대한 량의 언제성토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건설자들은 전투장마다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자력갱생, 전인분발하여 진격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언제나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건설기계화사업소와 운수직장의 전투원들은 5월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6월에도 언제성토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마련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굴착기와 삼차,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수십만㎥의 언제성토과제를 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특히 혼합직장과 가설직장, 중기계직장과 가설직장, 공무동력직장의 건설자들까지 모두 떨쳐나 6월 12일 하루동안에만도 3 300여㎥의 언제성토를 진행함으로써 최고기록을 창조하는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였다.

언제콰안심벽기초굴착을 맡은 굴착직장과 수송직장의 건설자들은 종전보다 2배이상의 굴착실적을 기록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언제바닥시추주입에 떨쳐나선 시추직장의 전투원들도 불타는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맡은 과제를 두꺼, 세몇씩 해제끼였다.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물동수송을 위한 수십리구간의 도로가 새로 형성되고 여러개의 자력갱생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발전소건설을 더욱 빠른 속도로 내밀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자강력은 곧 과학기술력이라는것을 심장깊이 자각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이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많은 량의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완공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언제나 당의 부름에 결사관철로 화답해나서는 강동수력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전체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전투장마다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발전소건설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김영남동지가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고 귀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축구련맹 2018년 월드컵경기대회 개막행사에 참가하고 18일 귀국하였다.

김영남동지를 영접하는 의식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있었다.

김영남동지와 일행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외무성 부상 리길성동지와 알렉싼드르 위스뜨리꼬브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 손홍량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가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학생용가방생산성과 계속 확대

신의주가방공장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신의주가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학생용가방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증산돌격전을 벌려 수만개의 여러가지 학생용가방을 생산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은 학생용가방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지방공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면서 학생용가방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떠밀어주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온 공장에 혁신과 비약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다.

공장참모부에서는 로력조직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모든 작업반들에서 매일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제봉3작업반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작업반에서는 질좋고 맵시있는 학생용가방을 생산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증산돌격전을 벌려 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재단작업반의 종업원들은 가방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았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매일 맡은 과제를 넘쳐 수행하였다.

련대적혁신은 재단날염작업반과 포장작업반, 제봉1, 2, 4작업반에서도 일어났다.

일군들은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또다시 많은 학생용가방을 생산할 목표를 제기하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장에서는 가방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여 질좋고 맵시있는 학생용가방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과학기술보급실에 가방생산과 관련한 자료기지를 구축해놓고 기술학습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주체의 붉은 당기여, 무궁토록 휘날리라

6월의 하늘가에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우리의 당기가 펄펄 휘날린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이 비상히 떨쳐지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이 절세의 위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뜨거운 추억을 안고 당중앙위원회의 청사에 나붓기는 당기발앞에 자신들을 세워본다.

붉게 타는 노을마냥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는 조선로동당기,

장장 수십성상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인도하며 그 세찬 펄럭임을 순간도 멈춘적 없는 붉은 기폭을 우러르며 우리 삼가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당령도사의 첫 페지를 펼친다.

주체53(1964)년 6월 19일!

아직은 누구도 이날의 거대한 력사적의미에 대하여 모르고있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당사업과 관련한 진지한 담화를 나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한밤을 꼬박 지새우시었다. 그러시고는 이른새벽 일군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오시었다.

청신한 새벽공기속에 휘날리는 당기가 선명히 안겨왔다.

새벽이슬에 젖은 당중앙위원회 구내길에 서시여 펄펄 휘날리는 당기발을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

저 기발은 불바다를 헤치며 간고한 시련의 언덕을 넘어온 혁명의 기발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붉은 기발을 높이 휘날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수령님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

정답고 눈부신 그 자태를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심중에 그려보신것은 무엇이였던가.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이 아니였던가.

우리 당의 성스러운 로정을 누구보다 가슴뜨겁게 안고계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 인민의 념원을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신의 숭고한 사명감으로 새겨안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산악파도 같은 크나큰 무게를 담아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 이것이 나의 필생의 과업입니다.》

6월 19일, 바로 그날부터였다.

그날과 더불어 조선로동당은 새로운 활력과 약동의 숨결을 안고 풋길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잊지 못할 그날이 있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을 뿌리며 자기의 력사우에 더욱 눈부신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뜨겁게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였다.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며 굳게 다지신 맹세를 한생 심장속에 간직하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짱그리 바쳐 실천해오신 우리 장군님.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창건자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당, 주체의 항로를 따라 혁명위업을 향도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 불패의 당으로 누리에 존엄떨쳐주신것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업적중 불멸할 업적이다.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속에서도 그이께서는 조국과 혁명앞에 지니신 력사적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초인간적인 정열, 비범한 사색과 탐구로 선행한 로동계급의 100년사상사를 분석총화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만 부를수 있는 자주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 선포, 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카륜회의에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히신것과 같은 력사적사변으로서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계기로 되였다.

어느해 2월 16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마련된 연회에서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가 숭엄한 추억의 메아리를 불러온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한 나라의 당을 수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안에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운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것을 김정일동지가 실현하였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통일단결을 이룩하여놓은것은 김정일동지의 공로가운데서 가장 큰 공로이다. …

진정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자면 주체사상의 기치높이 당을 튼튼히 무리고 그 전위대오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야 한다는 철리를 심장속에 새기시고 전당김일성주의화 기치를 높이 드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비범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안에서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당건설, 당활동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전당에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이 철저히 확립된것 아니였던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수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을 생명선으로 틀어쥐시고 우리 당을 명실공히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가 체현되고 수령님의 풍모가 꽉 차 있는 위대한 당,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혁명의 정치지참모부, 생기발랄하고 활력에 넘쳐 전진하는 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실현하실수 있는 거창한 위업이였다.

틀림없이 간고하였던 시련의 나날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어떻게 주체의 한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를, 성스러운 조선로동당기가 어떻게 력사의 폭풍속에서 변함없이 세차게 휘날리는가를 실체험으로 목격하였다.

1990년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혁명의 붉은기를 내리워보려고 그처럼 갖은 발악을 다하던 엄혹한 시련의 언덕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이런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오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의 위업, 우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고헤치신 력사의 준령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이께서 줄기차게 이어가신 조국수호의 전선길들, 초소에서 공장으로, 협동벌과 들끓는 건설장에서 또다시 전선으로, 이렇게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걷고 걸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그 날과 달들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의 불빛은 아전차의 불빛으로 이어졌고 인민을 보살피는 온혈로운 손길은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뜨겁게 와닿았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모습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기에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어려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비극적사태에 대처하여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적당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힌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외국의 한 인사는 그때를 회상하여 《김정일동지와 붉은 당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회주의와 당에 관한 사상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와 당에 관한 5대명제는 인류사상사에 특기할 지서들로서 20세기는 물론 21세기의 모든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 혁명가들의 사회주의신념의 쇄불이고 당사업의 기치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싶다.》

주체의 붉은 당기를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의 위업, 우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넘고헤치신 력사의 준령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이께서 줄기차게 이어가신 조국수호의 전선길들, 초소에서 공장으로, 협동벌과 들끓는 건설장에서 또다시 전선으로, 이렇게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걷고 걸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그 날과 달들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창가의 불빛은 아전차의 불빛으로 이어졌고 인민을 보살피는 온혈로운 손길은 시련이 겹쌓일수록 더욱 뜨겁게 와닿았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모습을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았기에 천만군민은 최세의 정치지도자, 인민의 어버이를 높이 모신 크나큰 행운을 안고 조선로동당기를 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줄달음쳐왔다.

진정 우리 장군님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치시며 자신의 심장과 온넋을 바쳐 조선로동당을 가장 강위력하고 존엄높은 당,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신 절세의 위인, 우리 당기발의 위대한 기수이시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만이 아닌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최세의 정치원로, 걸출한 령도자로 칭송하면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이끌어오신 수십성상이야말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천인미답의 길을 완강히 헤치고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에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준 영웅서사시적행로라고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오늘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혁명의 길을 함께 헤쳐온 사랑하는 인민과 더불어 영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느라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전에 쟁쟁히 메아리쳐온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당의 창건자이신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여오신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입니다.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패의 위력,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만복이 현실로 꽃펴나고있으며 6월 19일은 조선로동당의 력사,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에 영광의 날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로동당기여! 무궁토록 휘날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고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비껴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를 따라 최후승리에로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전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글 본사기자 백 영 미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티없이 깨끗하고 웅심깊으며 진실한 사랑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쁠 때도 어머니를 찾고 다 자라서도 어머니를 때없이 찾는것이리라.

우리 당의 모습은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을 지닌 어머니의 모습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람이 세상에 태여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당에서 책임지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사회에 내세워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주어 영원한 삶을 빛내여주는것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며 곧 자신의 인간철학의 핵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일찌기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킬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일군들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김일성동지의 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비껴흐르는 이 구호를 조선로동당의 좌우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던 나날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만사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있다.

수십년전 어느날 한 지방에서 성냥이 떨어졌다는 자료가 제기되였다.

그 자료를 받은 일군은 속으로 그런 문제를 대책하지 못하고 제기해온 지방당일군들을 나무라며 위대한 장군님께 올리는 문건의 맨 마지막자리에 간단히 한줄 써넣었다.

일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냥이나 소금같은것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한시도 떨어져서는 안될 필수품인데 어째서 문건의 맨 마지막에 반영했는가고 하시면서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 인민들의 리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큰것이건 작은것이건 관계없이 문건의 첫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우리는 인민의 리익을 무엇보다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문제부터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모든 일의 순서가 그렇게 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였다.

근로하는 인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는 어머니당의 품에 안기여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처럼 긍지높고 행복한 인민이 력사의 그 어느 시대에 있었던가.

인민의 리익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사랑의 비행기가 날고 중요대상건설에 앞서 철거세대들을 위한 살림집부터 먼저 지어준 전설같은 이야기가 이 땅우에 꽃펴나게 되였다.

한번 정을 주고 믿음을 준 사람은 끝까지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언덕에서 값높은 생을 빛내이고있는것인가.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여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젖을세라 비오면 가리워주고
추울세라 눈오면 다 막아주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여드는
그 품속에 사는 이 행복
이처럼 깊은 정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살아
천만심장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

조국강산에 뜨겁게 울려퍼지는 이 노래가 말해주듯이 우리에겐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꾸지 못할 남다른 긍지와 행복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정과 열의 세계를 페부로 절감하며 천만군민은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 원수님을 하늘땅 끝까지 받들고 따를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을 보살피는 우리 당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만지고 어머니당을 우러러 터치는 우리 인민의 흠모의 노래, 행복의 노래는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오 영 심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개성시 림한리당조직에서

개성시 림한리당조직에서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종류의 기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과 선동원들이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당보의 기사들을 독보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감명깊게 해설해주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욕자욕을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농사를 잘 지어 대풍을 이룩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해설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류 승 균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0(1991)년 5월 10일 조선로동당 제1차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당세포를 강화하자》를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서한에서 당세포는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이라고 하시면서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유기적결합체이며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은 세포이라고, 우리 당은 유기체의 세포에 비유하여 당의 말단기층조직을 세포라고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몸을 이루고있는 세포가 튼튼하고 작용을 원만히 하여야 사람이 건강한것처럼 당을 구성하고있는 당세포가 건전하고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당이 강해진다고,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이 뜻깊은 교시는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당세포를 강화하여야 전당을 강화할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대회참가자들은 당세포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대오로 더욱 강화할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를 강화하고 그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문헌이다.

당사업의 주인

어느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일군들이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당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자면 모든 당일군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우리 당의 핵심력량이며 당사업의 주인입니다. 우리 당의 존망과 당사업의 성패가 당일군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높은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연구하여야 하며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

일군들의 가슴은 새로운 신심과 용기로 끓어번졌다. 그러한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은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열걸음 뛰였다면 이제부터는 백걸음, 천걸음 뛰여야 한다고, 당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뛰여다니느라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건늘 때도 있을수 있는데 그것을 락으로, 보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시작하면 어떤 어려운 조건에 부닥쳐도 중도반단하지 말고 끝장을 보고야마는 실천력이 강한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교시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자기들이 맡고있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와 책임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였다.

리상적인 당선전일군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대로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군중을 교양하는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선전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조성된 정세도 알려주고 혁명의 불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당의 기초축성시기 선전일군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그때 선전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교양사업을 참신하고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아래에 내려갈 때에는 농립모를 쓰고 수수한 옷차림에 장화를 신고 논밭에 들어가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당정책을 해설해주었다. …

이런 참된 선전일군들이 있었기에 전당에 당의 령도체계가 확고히 서게 되였으며 우리 당은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당의 기초축성시기에 발휘된 선전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며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기대에 따라설 결의로 심장을 불태웠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당선전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면서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 일상적으로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교양하는 일군이 리상적인 당선전일군이라고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전선동부 일군들은 그런 리상적인 당선전일군이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수기◎

자애로운 그 영상 우리를 때면

인생은 추억속에 산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당의 품에 안겨 오래동안 당사업을 해온 나에게는 한생을 행복넘친 그 순간에 살게 하는 더없이 귀중한 추억이 있다.

지금도 어버이장군님을 몸가까이 만나뵈왔던 8년전의 뜻깊은 그날이 어제런듯 생생히 어려오고 그이의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가슴에 뜨겁게 파고들어 격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주체99(2010)년 6월 19일,

근 반세기동안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력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에도 어느날과 다름없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당시 12월5일청년광산에 파견되여 사업하고있던 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맞으며 광산의 일군들과 함께 로력혁신자들을 축하해주기 위한 준비사업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해북변에 위치한 광산을 찾아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광산의 책임일군은 장군님께서 뜻깊은 6월 19일에 광산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목메인 소리로 말씀올리였다.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축원을 받으셔야 할 날에도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광산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아뢰이는 인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고맙다고 하시며 현장을 둘러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광산에서는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광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광물생산에서 획기적전변을 가져왔다. 특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가성소다를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더해주시였다.

직관도들이 전시된 곳으로 가시여 가성소다생산방법과 생산된 제품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산과 관련한 높은 요구도 제기하시였고 로력문제와 종업원들의 살림집건설, 로동보호물자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시였다.

온 나라 인민의 축하를 받으셔야 할 날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송구스러움으로 나의 가슴은 피여드는것만 같았다. 일군들의 얼굴에 비낀 심정도 다를바 없었다.

광산의 책임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오늘은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광산의 전체 당원들과 종업원들을 대표하여 정중히 인사를 드리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함께 나도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삼키며 열광적인 박수로 축하의 인사를 올리였다.

그렇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며 다음공정에 대한 해설을 재촉하시는것이였다.

그지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고 묵묵히 헌신의 자욕을 수놓아가시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정녕 사무치는 그리움을 금할수가 없다.

광산의 로력혁신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눈물속에 바래우며 우리모두가 바란것은 그이께서 잠시라도 쉬시였으면 하는 절절한 소원이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길로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나는 목이 팍 메여 장군님 하고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어찌 8년전의 6월 19일뿐이랴.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6월 19일들은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더욱 심장을 불태우시며 크나큰 로고를 바치신 비상한 헌신의 날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언제나 영광의 그날에 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충정의 길만을 꿋꿋이 걸어가려는것이 나의 변함없는 마음이다.

중구역 교구동 30인민반
오 한 명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자

기술혁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명학탄광에서

명덕탄광에서 당이 맡겨준 석탄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결사전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은 최근 제33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무전동사슬굴개콘베아를 확대도입하여 생산성을 훨씬 높이였다. 이외에도 수십건의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나가고있다. 결과 탄광에서는 4월과 5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되였으며 날을 따라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이것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로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이 안아온 결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올해 탄광앞에 제시된 석탄생산목표는 지난해에 비해 훨씬 높다. 반면에 로력과 설비, 자재 등 부족되는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다면 석탄증산의 방도는 무엇인가.

지난 어느날 이 문제를 놓고 탄광의 한 막장에서는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격식없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얼띤 토의끝에 능률적인 무전동사슬굴개콘베아를 만들어 수평채탄막장들에 확대도입하는 등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 생산을 늘이자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것은 난관을 극복하고 최단기간내에 점령해야 할 아름찬 목표였다. 더구나 설비를 보다 능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술적과제수행도 결코 헐치 않았다.

그때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울려나왔다.

과학기술결사전을 벌려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불같은 열의속에 온 명대탄전이 과학기술결사전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즉시에 경험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4.15기술혁신돌격대벽랑이 보강되고 여러대의 굴개콘베아를 최단기간내에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과의 전쟁, 맹렬한 기술혁신전투가 시작되였다.

첫날부터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스스로 교대없는 전투원이 되였다. 모두가 하루에도 수십차에씩 막장과 설비제작전투장을 신발이 닳도록 오갔고 분초를 쪼개가며 철야전투를 벌리였다.

그러나 적은 자재를 가지고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능률적인 설비를 제작해내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제기되는 기술적문제의 한 고리를 풀면 또 다른 매듭이 해결을 기다렸다. 실패도 있었다.

그때마다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석탄산을 쌓아가는 탄부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기술자, 기능공들을 높은 목표점령에로 거듭 재촉했다. 배영학, 박성국동무들을 비롯한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용기백배하여 지칠줄 모르는 탐구전, 창조전을 벌리였다. 설비제작을 위해 연구한 기술자료만도 수십건, 전동장치의 새로운 결합방식을 찾아 설비곁에서 꼬박 며칠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눈에 피발이 서고 입술은 터갈라졌지만 성공에로의 계단을 한층한층 밟아가는 모두의 얼굴에는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력력했다.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탄광 일군들, 련관부문의 연구사들도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탐구와 노력을 기울이였다. 긴장한 하루하루가 흘렀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끝내 감속기와 머리부가 일체화된 전동장치를 설치하고 부하와 동력전달계통의 결합을 새롭게 하여 능률적인 설비를 만들수 있는 비결을 찾아냈으며 기술혁신전투를 다그쳐나갔다.

위훈은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속에서도 창조되였다.

이들은 굴개콘베아를 만드는데 필요한 많은 량의 자재와 부속품생산, 설비조립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일군들도 로동자들도 모두가 생산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기대걸을 떠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있어서 매개 부속품들이 자기들의 손에 의하여 직접으로 가공완성되는 한순간한순간은 곧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한걸음한걸음이였다. 날이 갈수록 온 명대탄전이 과학기술결사전의 도가니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속에 드디여 자랑찬 결실이 이룩되였다.

탄광의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능률적인 무전동사슬굴개콘베아들을 제작도입하여 석탄생산을 부쩍 끌어올렸다.

힘찬 동음을 울리며 굴개콘베아가 석탄을 씽씽 운반하는 광경을 목격하며, 높이높이 솟아나는 석탄산을 바라보며 탄전의 사람들은 누구나 화신에 넘쳐 말했다.

《과학기술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기술혁신성과이자 곧 석탄폭포이다.》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은 자력갱생, 기술혁신에 석탄증산의 길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새기고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과학기술결사전에 떨쳐나섰다.

엄마전에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많은 량의 콩크리트침목으로 운반로선을 보강하여 전차와 탄차들의 가동률을 훨씬 높이였다. 이뿐이 아니다. 너도나도 떨쳐나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거세차게 일으키는 속에 탄전의 곳곳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천공작업에 필요한 정머리의 수명을 훨씬 늘이였고 전차와 탄차의 중요부속품들을 자체의 기술로 제작설치하여 설비가동률을 높이고있으며 구상흑연주철을 생산하여 부족되는 강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준비가 끝난것을 비롯하여 탄광에서는 날이 갈수록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되고있다.

어제와 오늘의 비약적인 발전을 두고 조광혁지배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석탄증산의 중요한 지름길은 새 기술도입에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비약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석탄산을 더 높이 쌓아가겠습니다.》

지금 명대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은 피끓는 가슴마다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만장약하고 9월의 대축전장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명 춘 길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

명학탄광에서

명학탄광에서 능률적인 막장설비와 많은 부속품, 소공구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석탄생산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탄광의 당, 행정일군들은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방도를 기술혁신에서 찾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기술자들과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술혁신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낄 일념안고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탄광기술자들은 여러대의 막장삭도식운반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도입하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이들은 탄부들과 지혜를 합쳐가며 전력이 없이도 채탄막장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보다 능률적인 기재를 제작하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지난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설치와 해체가 헐하고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다루기 편리한 막장삭도식운반기를 보다 갱신하여 채탄막장들에 확대도입하였다.

현재 탄광의 1갱과 2갱의 채탄막장들에서 이 기재들을 리용하여 석탄운반을 진행한 결과 로력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생산은 부쩍 늘어나고있다.

탄광의 기술자들은 련관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만목굴개식콘베아를 제작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시키고있는것을 비롯하여 1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고있다.

공무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매달 부속품, 소공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부속품, 소공구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방도를 품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찾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지난해에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설비를 새롭게 제작설치한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기계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얼마전에는 공작기계와 공기함마를 비롯한 여러대의 기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정상가동시켜 생산에 적극 리용할수 있게 한것을 비롯하여 좋은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고있다. 결과 직장의 품질기술적토대는 한층 강화되여 석탄생산에 필요한 부속품, 소공구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로운 소재생산방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치차를 비롯한 부속품들의 질을 한계단 높여나가고있다. 전차와 탄차, 압축기 등 석탄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제때에 신속히 수리정비하여 만가동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전투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탄광기술자들은 들끓는 생산전투장들에 나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재와 소공구들을 막장에서 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방도를 찾고 실천에 받아들이고있다.

날이 갈수록 탄광안에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현지보도 발파소리 드높다, 막장이 전진한다

개천탄광 종합중대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더 많이 조성하고 새로운 탄광과 갱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맹렬한 생산돌격전으로 들끓는 여기는 개천탄광 종합중대 굴진막장이다.

지금 이곳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탄부들이 련속천공,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따르륵, 따르륵—

암반을 뚫는 소리가 귀청을 때린다. 정머리에서는 흰색의 돌가루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긴 정대가 암벽에 깊숙이 박힌다.

쏟아지는 석수도 아랑곳하지 않고 착암전투를 벌리는 굴진공들의 얼굴마다에는 오늘 계획도 넘쳐 수행할 결의가 력력하다.

다른쪽에서는 탄부들이 맹렬한 비력치리전투를 벌린다.

천공작업과 비력치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립체전인것이다.

《과학기술의 위력》, 《만리마속도》, 《결사관철》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표어들은 탄부들을 맹렬한 생산돌격전에로 더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탄광기동예술선동대의 힘찬 북소리도 드높다.

잠간사이에 넓은 암벽에 법동지처럼 천공구멍들이 숭숭 난다. 이어 착암기소리가 확 멎은 막장안에 정적이 깃든다. 천공작업이 끝난것이다.

굴진공들이 시간을 측정한다.

《기준보다 15분 단축했구만!》, 《오늘 굴진계획도 200%는 문제없소.》

굴진공 안광일, 리정준동무들의 희열에 넘친 목소리가 막장안을 울린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박원남기술발전과장은 《굴진소대원들이 탄광에서 새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어낸 정머리를 리용하고 가치있는 앞선 천공방법을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거의 두배로 높이고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한쪽에서는 발파공들이 숙련된 솜씨로 발파구멍에 화약을 다져넣는다.

발파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이윽고 울리는 소대장의 힘찬 구령소리.

《발파—》

심지에 불이 달린다. 잠시후 요란한 발파소리가 온 막장을 들었다놓는다.

《쿵, 쿵, 쿵쿵—》

얼마쯤 지나서 탄부들이 발파장소로 달려간다. 서로서로가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기뻐한다. 그러면서 어제보다 1.2배나 더 전진했다고, 기술혁신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들의 말을 증명하듯 자랑찬 로력적성과가 현장속보판에 새겨진다.

《종합중대 굴진소대원들 교대계획 앞당겨 완수!》

기술혁신으로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한 탄부들이 자신심에 넘쳐 련속 공격전에 진입한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새 승리를 향하여 질풍처 달려나갈 불굴의 기상이 어려있다.

따르륵, 따르륵—

착암기의 동음이 또다시 갱벽을 울린다.

요동치는 착암기를 틀어잡은 탄부들의 모습은 전화의 용사들을 방불케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혁신의 발파소리 높이 울린다. 막장이 전진한다.

김 학 철

대담한 목표와 완강한 실천력으로

형봉탄광에서

형봉탄광에서 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난 어느날 탄광책임일군들은 석탄증산의 예비를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보다 심속있게 짜고드는데서 찾고 경영관리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것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새 기술도입을 놓고 신심이 없어하는 사람들이 일부 나타났다. 원인은 높은 수준의 프로그람을 작성해본 경험이 없고 해결해야 할 기술적과제가 많은데도 있지만 보다는 자체기술력량을 믿지 못하고 과학기술을 신비한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견해에 있었다.

당에서는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고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 김창웅지배인은 콤퓨터망에 의한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체계를 탄광자체의 힘으로 구축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중에게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기로 작정하였다.

돈의끝에 탄광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 실장 장수정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개발조를 조직하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하지만 시작부터 얼음우에 박밀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것은 아니였다.

탄광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람자료기지를 구축하는것이 예상했던것보다 더 어려웠던것이다. 그러나 일군들은 탄광의 기술자들을 믿고 완강하게 사업을 추진시켜나갔다.

지배인은 먼저 앞선 단위들에서 경험을 배워오도록 장수정실장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다른 단위의 좋은 점은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부족한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개발조성원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보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람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젊은 기능공들로 그 력량을 보강하였다. 이렇게 하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람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였다.

과학기술보급실장의 높은 실력과 새 세대 젊은 기능공들의 진취적인 사업태도, 불같은 탐구열이 결합되여 창조적협조가 더욱 강화되였던것이다.

드디여 개발조성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첫 프로그람을 작성해낸데 이어 완성된 총화공시체계를 대성경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얼마후에는 과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콤퓨터망에 의한 일생산 및 재정총화공시체계를 모든 갱들에 구축하게 되였다.

력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있는 이 체계의 도입으로 탄부들의 생산의욕과 투쟁열의가 높아져 보다 큰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머리를 짓던 일부 사람들뿐아니라 모두에게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이를 계기로 탄광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최근에만도 압축기의 성능을 갱신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끝내고 자체로 만들기 어렵다던 착암기와 전동기 등 기계, 설비들의 중요부속품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되고있다.

지금 탄광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석탄산을 높이높이 쌓아가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제남탄광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새 제품개발에서 혁신

원산통신기계수리공장에서

원산통신기계수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체신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다기능화된 복합정류기를 새로 개발하고 생산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체신부문에서는 전원공급을 단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번에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다기능화된 복합정류기는 국가전력망과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태양빛전지판, 발동발전기를 리용하여 전기를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게 하는 전원설비이다.

리태범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종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설비를 자체로 제작할 높은 목표를 내걸었다. 일군들은 실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력량을 꾸리고 우리 식의 다기능화된 복합정류기를 짧은 기간에 개발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이 과정에 류정, 정철웅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원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피타는 탐구와 열정을 바치였다. 특히 축전지충전조종프로그람을 우리 식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다기능화된 복합정류기의 성능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다기능화된 복합정류기는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공장에서는 개건되는 원산시강냉이가공공장의 생산설비들을 자동적으로 조종할수 있는 자동종합조종반과 군민발전소건설장들의 물길굴공사장에 필요한 휴대용전기발파기 등 많은 새 제품들을 개발하여 도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도 적극 기여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박봉주동지

평안북도안의 여러 단위 현지료해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평안북도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박봉주동지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봉화화학공장, 정주탄연구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면서 이미 이룩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서 평안북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였으며 그 수행을 위한 현실적방도들이 토의되였다.

박봉주동지 락원기계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농장벌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화대군 창촌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얼마전 우리는 화대군 창촌협동농장 제1작업반을 찾았다.

푸른 잎새를 활짝 펼친 논과 밭들을 바라보느라니 풍성한 가을의 황금벌이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었다.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훌륭한 작황을 마련해가고있는 이곳 작업반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그대로 안겨왔다.

우리와 동행한 농장일군은 바로 여기가 다수확작업반으로 군은 물론 도적으로 소문을 내고있는 제1작업반 로친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알곡생산계획을 해마다 초과완수한 자랑, 작업반마을을 새롭게 전변시켜가는 자랑…

그날 농장일군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몇해전이였다.

제1작업반장 박청길동무의 집창가에서는 밤깊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서한을 자자구구 새겨가는 그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였다.

정녕한 농장원이였던 자기를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도 참가하도록 해주고 한개 단위의 초급일군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할 맹세가 그의 심장속에서 뜨겁게 맥박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작업반을 전국의 본보기작업반으로 꾸리리라!

하지만 결심이 곧 실천은 아니였다.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박청길동무는 그 원인을 일부 농장원들이 작업반에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있는데서 찾았다.

그는 당면한 영농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농장원들의 심장의 문을 먼저 두드렸다.

새벽이면 남먼저 거름을 져날랐고 휴식참이면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당의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작업반원들을 따뜻이 대해주면서 그들모두를 한식솔로 만들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자기 집일보다 작업반원들의 살림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언제인가는 자식들을 위해 장만하였던 례장감을 결혼식을 하는 작업반의 처녀총각들을 위해 내놓았고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새 집도 지어주었다. 또 어느 한 농장원이 집수리때문에 마음쓰고있다는것을 알고는 작업반의 단합된 힘으로 도와주었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작업반장의 이신작칙은 말없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거름더미이자 쌀더미라고 하면서 앞장에서 거름생산실적을 올리는 작업반장의 뒤를 따라 농장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거름생산전투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작업반에서는 그해 모든 논밭들에 정보당 20여t의 거름을 낼수 있게 되였으며 생물농약과 대용비료를 전해에 비해 훨씬 많이 생산하여 알곡생산에 적극 리용하였다. 김매기에서도 늘 농장적으로 앞서나갔다.

이들의 불타는 노력은 알찬 열매를 맺었다. 그해에 이들은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농장원들의 살림은 더욱 풍성해졌다.

그럴수록 농장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자체의 힘으로 농업과학기술선전실과 작업반실, 분조농기구창고, 축산기지, 탈곡장을 련이어 개건하였다. 해마다 10여세대의 살림집을 짓고 그 주변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어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일신시켜나갔다. 지난해에는 탁아소를 새로 훌륭하게 건설하고 비롯까지 일식으로 갖추어주었다. 축산을 잘하여 어린이들에게 콩우유와 닭알도 공급해주었다. 인민군대원호사업도 잘하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보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이들이였다.

이곳 농장원들은 올해에도 적지 않은 새땅을 얻어내여 경지면적을 늘이였으며 많은 거름을 내여 논밭들을 옥토로 전변시키였다.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데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자각한 이들은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해 애썼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수심정보에 달하는 논의 버모내기도 한주일동안에 해제끼였으며 강냉이밭김매기에 성실한 땀을 바쳐갔다.

이뿐이 아니다. 이들은 수백㎥에 달하는 작업반구내콩크리트포장을 한주일동안에 해제낀것을 비롯하여 작업반꾸리기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돌아볼수록 알곡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여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를 빛내일 열의가 작업반원들 모두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있었다.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이들처럼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농장벌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농장원들이 있기에 작업반의 래일은 더욱 밝고 창창한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리 은 남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마련된 주체과학기술발전의 만년토대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을 찾아서 (1)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70년의 성스러운 력사를 거슬러보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계기로 얼마전 우리는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을 찾았다.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참관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체과학기술발전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바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겨볼수 있었다.

※ ※

우리가 국가과학원에 들어서니 혁명사적관 앞마당은 아침부터 많은 참관자들로 붐비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월 새로 개건된 우리 국가과학원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신 다음부터 사적관을 찾는 참관자들이 더욱 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교양과장인 한화숙동무의 이야기였다.

지난 1월부터 전국의 300여개의 단위들에서 수만명이 이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사적관으로 들어섰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승엄하게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걸어온 주체과학발전의 천만리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이어갈 전체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76(1987)년 11월 15일과 주체82(1993)년 11월 21일 위대한 수령님들을 국가과학원에 함께 모셨던 력사의 그날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입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금시라도 넓으신 품에 안아주실듯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우러르며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이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국가과학원현지지도일지를 보며 참관자들은 국가과학원을 나라의 대규모과학연구기지로 꾸려주시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최상의 생활조건, 연구사업조건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헌신의 자욱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과학의 최고전당이며 앞으로 모든 과학연구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할 사명을 지닌 과학원이 전쟁의 불길속에서 창립된것은 우리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1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원(당시)을 창립하시고 비날론생산의 공업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과학원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함흥분원을 만년대계의 과학의 전당으로 꾸리고 과학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1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과학자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과학부문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우리 수령님.

주체41(1952)년 4월 27일, 전선에서는 그야말로 한치의 땅을 놓고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던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벌써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전쟁의 승리와 전후복구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도록 과학자대회를 소집해주신것이였다.

아직은 준엄한 전선형편으로 하여 시간이 천금같이 귀중하시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일동안 진행된 대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대회 두번째날 휴식시간에 일군들, 과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과학사업을 전반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조직지도하는 국가기관인 과학원의 창립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그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나라사정이 어렵고 힘겨운 전쟁을 하고있는 형편에서 그리고 과학진영이 약하기때문에 과학원을 창립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해나섰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과학진영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선 과학연구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사업체계를 튼튼히 세워놓고 과학기술발전을 급속히 추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원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12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

참으로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원을 창립하여주신것은 주체과학발전력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온 력사적전환점이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그렇듯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온 국가과학원!

바로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국가과학원은 혁명과 건설의 매시기마다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한것이 아닌가.

우리는 흥분된 심정을 안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청수비날론중간공장(당시)과 공화국창건 10돐을 맞으며 진행된 과학전람회를 돌아보신 영상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참관자들은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우리 나라의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체적공업이라고 하시면서 비날론을 연구하고 공업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리승기선생을 높이 평가하시여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은혜로운 어버이사랑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로 자라난 과학자들은 그 얼마이며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오늘도 영생하는 삶을 누려가는 과학자들은 또 얼마인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과학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를 새겨안으며 주체과학의 어제와 오늘의 자랑찬 발전모습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다른 벽면에는 함흥분원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화학부문 과학자들이 함흥의 화학공업지구에 연구소, 실험실들을 차려놓고 생산과 밀접히 결부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며 만년대계의 과학의 전당으로 잘 꾸리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그때로부터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은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떠밀어나가는데서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참관자들은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우리 지식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1960년대 중엽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나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통탄하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은 사회주의사회의 과학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를 하자면 과학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식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기발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주시여 지식인들을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이 창전한 혁명가적풍성을 지니고 우리 당과 영원히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신 친어버이의 다심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 과학자들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변함없이 당을 따라 꿋꿋이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은것이 아니랴.

하기에 올해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과학의 리전, 과학으로 복무해야 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이 있으며 과학을 해도 오직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아래서만 하겠다는 억척의 신념을 간직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길이 빛내이게 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떻게 되여 오늘과 같이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데서 과학기술전선의 주력부대로서의 위력을 떨칠수 있었는가를 다시금 느끼며 2호실로 참관을 이어갔다.

2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립 20돐을 계기로 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신 사적자료들과 경공업, 생물학, 조수력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방향을 제시해주신 사적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여기에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원 및 사회과학원창립 스무돐을 맞으며 기념보고대회를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대회에 참가한 과학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잊지 못할 그날을 감동깊이 되새겨보았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회의장소에서 기념보고대회를 진행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

그 사랑, 그 믿음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투쟁에서 어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왔던가.

우리는 서해갑문건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20리 날바다우에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 식으로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과학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낄수 있었다.

이어 3호실에 이른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과학도시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신 사적자료들에 대한 해설을 감명깊게 들을수 있었다.

196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과학발전의 중심거점으로 될 과학도시를 건설한 나라는 아직 없었다.

하지만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데서 큰 몫을 맡아할 과학연구기지인 과학원을 전망성있게 꾸릴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구기관호상간, 과학자호상간 련계를 강화할수 있는 대규모의 과학도시가 자리잡을 터전을 찾기 위해 직접 일군들을 어려운데 파견하기도 하시고 여러차례 협의회도 마련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38(1949)년 1월 5일 순천군 사인면 력산리 원동부락(당시) 당세포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알아야 혁명을 잘할수 있고 또 해낼수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주신 력사의 땅에 웅장한 과학도시가 뿌리내리게 되였다.

과학도시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을 당중앙위원회 회의실로 부르시여 과학연구사업을 해야 모든것이 풀린다고 하시며 과학도시건설은 자신께서 직접 틀어쥐고 내밀어주시겠다는 크나큰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의하여 처음으로 세상에 태여난 은정과학지구가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의 빛나는 결정체로, 현대적인 과학연구기관들과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갖추어진 웅장한 과학도시로 더욱 훌륭히 전변되여가고있는것이 아니랴.

문득 우리의 눈앞에는 연풍과학자휴양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에서 우리의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쌓였던 피로를 풀게 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와 저도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이 호실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다시금 알게 되였다.

주체76(1987)년 11월 15일, 이날은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시였지만 천금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과학원을 찾아주시여서는 과학자대의원후보자를 만나 축하도 해주시고 찬성투표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에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로 보답할 굳은 맹세를 안은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해나갔다.

영광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과학원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아주시는 영상사진문헌들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4호실로 향하였다.

여기에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과학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여 과학자대의원후보자를 만나주시고 일을 잘하여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하시며 찬성투표해주시였다는 강사의 해설을 들게 되였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커다큰 신임을 안겨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으로 참관자들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였다. 이날도 과학전시관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학연구성과전시품들도 보아주시며 우리 과학자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치하해주시고 과학연구성과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강령적가르치심도 안겨주시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주체과학발전의 만년토대를 굳건히 다져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주체과학의 개척자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오직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부강조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기마수들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이 아닌가.

국가과학원에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연구성과를 놓고도 그리도 기뻐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의 자욱을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나게 이어가고계신다.

올해 1월 국가과학원을 또다시 찾아주시여 새로 개건된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과학자들의 두뇌에서 나온 창조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이곳은 자력자강의 보물고, 국가과학원은 자력자강의 고향집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내 조국의 과학기술발전력사는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라는것을 깊이 확신하면서 우리는 참관을 계속 이어갔다.

본사기자 박 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해가고있다.
—평안북도도서관에서— 김 광 림 촬영

영웅의 넋을 이어가도록

금야군 한계만고급중학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사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청년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지닌 우리 당의 전위투사, 열렬한 애국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금야군 한계만고급중학교는 14명의 영웅을 배출한 자랑많은 학교이다.

학교청사앞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비행기를 타고 적함선에 돌입한 한계만영웅의 반신상이 있다. 하기에 군안의 학생들은 영웅비행사의 이름으로 명명된 학교에서 공부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영웅의 넋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학교일군들은 우선 실내에 학교에서 배출된 영웅들에 대한 소개판을 참직하게 내붙이였으며 조국보위초소에서 보내어온 학교졸업생들의 위훈소식을 제때에 소개하고있다. 초소에서 병사의 사진과 함께 위훈내용을 적어보낸 편지가 오면 온 학교가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학교에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싸운 영웅의 정신세계를 학생들이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한계만영웅과 나》라는 제목으로 글짓기와 웅변모임도 진행하고있으며 해마다 전승절에는 그림전시회를 조직하고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정든 고향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깊이 새기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게 되였다.

영웅의 넋을 이어가도록 하는데서 전시가요합창경연과 과외체육활동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학교의 교원들은 전화의 용사들이 불타는 고지에서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부른 전시가요들과 전투의 쉼참에 고향을 그리며 부른 전시가요들의 창작유래와 사상적내용을 해설해주었다. 이렇게 전시가요에 대한 해설을 곁들어 진행하니 학생들속에서는 전시가요를 부르려는 열의가 높아지고 학급들에서는 전시가요를 더 잘 부르려는 경쟁이 벌어지였다. 학생들이 부르는 전시가요를 들으며 군안의 인민들은 대전함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 나날에 학생들속에서는 과외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좋은 기풍이 세워지게 되였다. 공화국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를 빛내일 마음안고 학생들은 축구, 배구, 송구, 정구를 비롯한 체육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이악하게 훈련하고있다.

하기에 이 학교의 체육소조원들은 지난 시기 여러 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올해 뜻깊은 태양절에 군안의 학교들이 참가하는 체육경기에서 한계만고급중학교는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특색있는 배경대로 집단의 단결력을 떨치고 매 종목들에서 훈련을 통해 다진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한것으로 하여 한계만고급중학교는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오늘도 금야군 한계만고급중학교의 일군들과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전화의 영웅들의 넋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차 수

따쥐끼스딴에 가는 국토환경보호성대표단 출발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국토환경보호성대표단이 따쥐끼스딴에서 진행되는 2018년—2028년 지속개발을 위한 물 국제10년행동에 관한 국제고위급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1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정영남동지가 전송하였다.

유엔아동기금 부집행국장일행 도착

샤넬 마리 홀 유엔아동기금 부집행국장과 일행이 1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유엔아동기금 대표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료봉사의 평가기준은 인민의 목소리

‖ 평성의학대학 평안남도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세부를 통하여 많은것을 알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평성의학대학 평안남도인민병원에 대한 우리의 취재과정이 바로 그랬다.

의료일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병원의 의료봉사활동정형을 짐작할수 있게 하는 하나의 사실을 목격하였다. 사람들이 보내온 감사편지가 일군의 책상우에 무드기 쌓이였었던것이다.

편지에는 사람들의 진실한 감정과 심장의 고백이 담기군 한다. 하다면 인민의 눈으로 본, 인민이 심장으로 느낀 이곳 도인민병원의 의료봉사수준은 어떠한가.

편지의 글줄들에 다 어리여있었다. 최근 뇌신경외과연구실의 의료일군들이 외상성전간을 완치시킬수 있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확립하고 현실에 도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지난 시기의 방법과는 달리 수술적부담을 최대로 줄이면서도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새로운 치료방법은 환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었다. 오래동안 고통을 주던 질병을 여기 도인민병원에서 말끔히 털어버리였다.

여러 편지들에 담겨져있는 이러한 기쁨은 진단과 치료방법을 개선하는것을 의료봉사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자신들의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를 이어온 이곳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모습을 전하고있었다.

의료봉사수준은 의료일군들의 림상기술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실력을 떠나서 그 어떤 성과도 바랄수 없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일군들에게 있어서 실력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다. 이것은 공훈의사이며 박사인 안과학강좌 과장 김달영동무의 확고한 견해라고 한다. 이것만 놓고서도 강좌에서 실력향상의 불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일어번지는가를 쉬이 짐작할수 있었다.

그 나날에 인공수정체이식술을 비롯한 안과부문의 첨단수술들도 막힘없이 해낼수 있는 실력가들로 자란 이곳 의료일군들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지난 수십년간 도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많은 단위의 로동계급과 종업원들을 위해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온 이들을 어디서나 기다리고있다는것이 편지가 전하는 또 다른 모습이였다.

하기에 이들의 정성속에 광명을 되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찾아오는 이런 고마운 나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겠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흥부의과학강좌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정성속에 사경에서 구원된 정성시에서 살고있는 한 로동자의 흥분된 심정도 이와 다를바 없었다.

《과장선생님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의 말없는 눈빛에서 인민의 생명을 책임진 여기 인민병원에서 만약이란 있을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기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낳아준 어머니의 품보다 더 먼저 안겨드는 그 품은 바로 위대한 당의 품이며 사회주의제도의 크나큰 집입니다.》…

편지의 구절구절들은 무엇을 말하여주고있는가.

지극한 정성과 높은 실력으로 당의 보건정책을 총직하게 받들어온 이곳 의료일군들의 투쟁기풍에 의해 병원이 도의 치료예방사업과 의학과학기술발전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오고있다는데 대한 뚜렷한 실증이였다.

의료일군들의 치료사업성과들, 불같은 정성을 열렬히 토로한 편지의 주인공들.

그러나 그들도 의료봉사수준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 애쓰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다는 알수 없었다.

저침습성수술의 비중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병원에서는 이미전부터 복강경에 의한 수술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왔다. 바로 얼마전에 흥부의과학강좌 의사

당 결 정 은 우 리 의 생 명

강계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강계시가 나날이 자기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있다.

장자강에 비끼는 새 모습을 두고 말할 때면 강계시인민들은 누구나 이야기한다.

우리 시에서도 질좋은 세멘트가 팡팡 생산된다고.

오늘 공장에서 생산되는 세멘트는 도와 강계시의 건설장 어디서나 호평을 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실천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사실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멘트의 질은 높지 못했다.

물로크나 겨우 찍을수 있는 세멘트를 두고 진흙보다 조금 낫다고 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지배인 김태영동무의 마음은 괴로왔다.

하루를 열흘맞잡이로 일해온 보람이 있어 공장의 면모도 달라지고 생산도 장성하였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생산계획을 수행했는가 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제품을 조국과 인민앞에 내놓았는가 하는것이였다.

자기 공장과 자기 일터, 자기 고향마을을 꾸리는데서는 누구도 자강도사람들을 따르지 못할것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가슴을 팡팡 울릴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우리 고장에 흔한 저열탄으로 기어이 고강도세멘트를 생산하리라.)

그것은 공장로동계급에게 있어서 무조건 끝까지 집행해야 할 당결정이였다.

그는 우선 고강도세멘트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석고부터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실험실장 김정애동무와 함께 실패를 거듭하며 진행한 실험만도 그 얼마였던가.

마침내 그들은 인조석고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고강도세멘트의 정상생산을 담보할수 없었다.

품위가 높은 원석을 채취할수 있는 장소를 찾아 지배인은 신발창이 닳도록 험한 길을 오르내리였다.

그결에는 시당책임일군이 함께 있었다. 이른새벽, 깊은 밤 때없이 공장을 찾아 소성로의 불길도 살펴보고 로동자들과 함께 걸린 문제도 토론하며 힘과 용기를 더해주던 시당책임일군의 뜨거운 믿음과 진정이 있어 그는 끝내 품위높은 원석을 채취할수 있는 장소를 찾아내고야말았다.

지금도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 채석장에서 공장까지 철길을 닦던 지난해 겨울을 잊지 못해 추억한다.

새로 개발한 채석장에서 품위높은 원석은 쏟아져나왔지만 그것을 공장까지 날마다 오는것이 문제였다. 지배인은 공장종업원들에게 불같이 호소하였다.

우리에게는 지금 자재도 로력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손을 내밀고 앉아서 우는소리만 할수 없다. 동무들, 산을 깎아 철길을 놓자.

있는 자재, 있는 힘, 있는 기술을 모두 합쳐 당결정을 실천으로 지키자!…

그들의 대담한 발기를 적극 지지하여 시당위원회는 물론 강계시인민들도 떨쳐나섰다.

소성종합작업반원들을 비롯한 공장로동계급은 항립군의 어느 한 오래된 갱에서 레루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십리 산길을 돌아놓았다. 하루빨리 공사를 다그칠수 있다는 기쁨에 넘쳐 그들이 온 하루 생는길을 헤쳐 산중턱에서부터 레루를 끌어내릴 때 눈보라가 몰아치는 공사장은 격전장을 방불케 하고있었다.

곡괭이날을 박으면 불꽃이 튀는 땅을 파서 도로를 닦혀 로반을 닦아야 하였으니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강추위속에서 그 한치한치에 묻은 땀은 얼마였겠는가.

공장종업원들과 그 가족들,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그대로 침목이 되고 레루가 되여 완공의 날을 앞당기였다.

그 철길을 따라 공장에 도착한 원석으로 생산한 고강도세멘트를 지배인은 너무 기뻐 불에 비벼보기까지 했다니 난관과 시련을 뚫고 기어이 당결정을 관철한 공장로동계급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올해에는 더 질좋은 고강도세멘트를 생산할것을 당결정에 포아박은 공장로동계급은 한사람같이 분발하여 일떠섰다.

현대화된 공장들은 다 찾아가보며 앞선 경험들을 배워온 공장기술일군들은 우선 소성로부터 과학기술적으로 개조하였다.

아버지가 섰던 초소를 지켜 수십년세월을 공장에서 일해온 김정애동무는 소성로를 개조하던 나날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힘들어 주저앉았다가도 난 당원이지 하고 생각하며 일어서군 하였습니다. 당결정을 집행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것인가를 알았습니다.》

한 녀성당원의 꾸밈없는 고백, 그것은 그대로 공장로동계급의 진심이였다. 그 진심을 안고 그들은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 세멘트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온 공장이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던 지난 5월 어느날, 뜻밖에도 감속기가 멎어섰다. 감속기가 멎어섰다는것은 곧 생산의 동음이 멎는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온 공장종업원들이 감속기를 살려내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는 기술자들과 마음을 같이하던 그 시각 한 로동자가 현장으로 주춤거리며 들어섰다.

《우리 집에서 만든것인데… 그저 마음뿐입니다.》 하며 그가 안겨준 장갑들, 너무도 소박한 성의였지만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마음은 후더워졌다. 그들은 또다시 수리전투에 달라붙었다. 그리나 또 실패였다.

그 어느때보다 소성로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때였다.

감속기의 수명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기술자들은 머리를 저었다. 지배인은 저도모르게 눈물이 났다. 바로 그때 한 오랜 당세포위원장이 그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섰다.

《지배인동지, 온 강계시가 우리를 쳐다보고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렇다. 그는 지배인이기 전에 당결정을 목숨바쳐 지켜야 할 당원이였다.

나약해지는 마음을 가다듬는 그의 가슴속에는 자강도사람들은 당에 대한 충정심이 높고 난관을 이겨내는 정신이 강하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다시금 길이 새겨졌다.

끝끝내 그는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감속기를 살려내고야말았다. 그날 공장로동계급은 교대당 생산실적을 더욱 높여 10년대 최고기록을 돌파하였다.

그들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인 《저열탄에 의한 고강도세멘트생산공정확립》은 제32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소성로의 불길이 되여서라도 당결정을 기어이 관철하겠다는 공장로동계급의 신념, 진정 그것은 강계정신의 창조자답게 자력갱생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그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도인민회의 대의원인 지배인 김태영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자강도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아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처럼 일하고 또 일해서 그이께서 우리 고장을 찾으시면 우리 공장세멘트로 번듯하게 꾸린 강계시의 새 모습을 보여드리고싶은것이 모두의 소원입니다.》

본사기자 조 함 선

계속혁신, 계속전진만을 아는 사람들

문평제련소 아연전해직장 로동계급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손색없이 해내는 사람들, 이것이 문평제련소 아연전해직장 로동계급에 대한 집단의 평가이다. 앉으나서나 생산밖에 모르고 사는 이곳 로동계급은 당의 뜻을 받들어 유색금속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낮에 밤을 이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던 이곳 로동계급의 앞길에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였다.

대형뽐프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었던것이다.

순간 직장장 강기홍동무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인상작업반원들을 도와 박취작업을 진행한 수리작업반원들이 방금전에야 퇴근길에 올랐던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수리작업반원들이 한달음에 작업장으로 달려왔다. 생산을 순간도 중단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체없이 긴장한 수리전투를 벌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직장장의 마음은 뜨거웠다.

늘 마음을 설비들곁에 두고 사는 수리작업반원들이였던것이다.

대형뽐프수리에서 제일 큰 난관은 뽐프날개를 다시 만드는것이였다. 복잡한 모양새를 이루고있는 그 날개를 다시 가공하자면 전문기계공장에 의뢰하여야 하였다. 그들에게는 한시가 귀중했다.

수리작업반장 로영남동무는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면서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뽐프날개를 기발하게 착상해내여 단 몇시간안에 대형뽐프의 숨결을 다시 이어놓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저저마다 속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로영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야 나라의 보배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그 값높은 부를 더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여가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온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마음이기도 하였다.

이곳 로동계급은 오늘도 자기들의 일터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걱정속에 더듬어보군 한다.

당시 자기들의 작업장도 스스럼없이 찾으시여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그 로고를 생각할 때면 누구나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군 한다.

하기에 낮에 밤을 이어 전해장에서 박취작업을 벌려고있는 인상작업반원들과 로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유도로작업반원들을 비롯하여 이곳 로동계급은 막아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유훈관철을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는것이다.

직장의 혁신자들속에는 위영국, 임경옥부부도 있다. 남편은 인상작업반의 인상공이고 안해는 운전작업반의 기중기운전공이다. 한가정을 이룬 때로부터 20여년이 흘러간 오늘까지 가정일보다 직장일을 먼저 생각하며 맡은 일에 헌신하고있는 이들부부이다.

어려움과 난관이 막아나설 때면 가정주부인 임경옥동무의 마음은 동요로 하여 흔들린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디는 자기에게 당부하던 아버지의 말을 되새겨보군 했다.

《당이 안겨준 믿음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살 때만이 그 어떤 어려움도 웃으며 헤칠수 있단다.》

그 말속에서 자신이 지닌 보답의 본분을 자각했기에 임경옥동무는 아버지가 일하던 일터에서 대를 이어 보람찬 위훈의 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었다.

당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다. 계속혁신, 계속전진 앞으로!

한직종에서 40여년을 일해오고있는 인상작업반의 오랜 기능공인 김일남동무를 비롯하여 묵묵히 맡은 일에 헌신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서는 바로 이런 신념의 메침이 끝없이 울려고있다.

그 신념을 안고 오늘도 이곳 로동계급은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한 유색금속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인민의 복무자, 그 부름 빛내여가리

서성구역고기상점 종업원들

흥성이는 상점, 이것은 언제나 때때에 신선한 고기와 알, 물고기가 딱 차있어 손님들의 발걸음이 그칠새없는 서성구역고기상점에 대한 구역주민들의 평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되며 최우선시되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봉사활동을 잘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는 서성구역고기상점을 찾았다.

아담하고 깨끗한 봉사건물의 외부도 좋았지만 상점에 들어서는 순간 손님들을 맞이하는 봉사원들의 밝은 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구력이 넘쳐나게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 로인을 문밖까지 바래주는 친절한 봉사원도 있었고 김이 문문 나는 고기국을 받아가며 좋아하는 손님에게 양념감을 곁들어주는 봉사원도 있었다.

이곳 책임자 김성옥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상점의 곳곳을 돌아본 우리는 뜻밖에도 그에게서 상점종업원모두가 제대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그는 두툼한 편지묶음을 내놓았다. 그속에서 편지 하나를 펼쳐보니 서성구역 상흥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채현국동무가 쓴것이였다.

《…이번 해양절에 저의 집에 찾아와 성의껏 준비한 노래도 불러주고 신선한 고기제품들도 안겨주며 명절을 뜻깊게 쇠도록 마음써준 종업원들의 친정을 대하며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난 5년세월 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도록 이끌어준 종업원동지들에게 전우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인사는 장산동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학철동무가 보내온 편지에도 적혀있었다.

어찌 그뿐인가.

매일 아침저녁 상점에서 고기국을 끓여 봉사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한 소학교 녀교원의 편지도 있었고 아들결혼식에 쓸 물고기를 주문했었는데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 고맙다는 로인의 편지도 있었다.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들을 일별하는데 김성옥동무는 두손을 내저으며 아직은 인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에 일떠선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각 도소재지들에 보통문거리고기상점과 같은 상점을 건설하고 지방들에 꾸려놓은 돼지공장들과 닭공장들에서 생산한 고기와 알 그리고 그 가공품들을 인민들에게 공급해줄데 대하여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구역안의 일군들과 이곳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성구역 장산동에 고기상점이 일떠섰고 봉사가 시작되였다. …

《사람들은 5년전에 문을 연 우리 상점이 이제는 구역주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들어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당의 은정속에 일떠선 상점이 인민들의 생활에 실지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그 나날에 상점에는 매일 한가지씩 좋은 일을 한 정형을 기록하는 자그마한 책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점을 불편해하는가, 주문, 송달사업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적어넣어 봉사원들에게 알려준 박영순, 리경미동무들의 소행이며 구역안의 공로자가정들의 집주소를 적어두었다가 명절이나 생일에 집에 찾아가 우선봉사를 해주군 하는 류수향, 강옥주동무들의 미풍, 늘 밝은 인상으로 손님들을 대해주어 우리 봉사원처녀로 사랑받는 고설향, 고진애동무들에 대한 이야기…

감동어린 눈길로 책장을 넘기는 우리에게 김성옥동무는 말했다.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우린 군사복무의 나날 늘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았습니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인민을 위해 복무의 자욱을 새기던 어제날처럼 언제나 인민의 복무자, 그 부름을 빛내이며 살려는것이 제대병사인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인민의 복무자,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그 부름을 안고 삶을 빛내이려는 그들의 마음이 소중했다. 이런 봉사자들이 있어 당의 크나큰 은정은 인민의 생활속에 더 깊이, 더 뜨겁게 가닿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오 은 별

참 된 기 계 화 초 병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뜨락또르운전수 리금철동무

높은 알곡생산성과를 이룩한 농장들에 가보면 실농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참된 기계화초병들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든 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도 농장원들이 자기들의 위훈에 앞서 자랑하는 뜨락또르운전수가 있다.

그가 바로 농장 기계화작업반 리금철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뜨락또르운전수들은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으로서 농촌기술혁명의 선구자가 되여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여야 합니다.》

리금철동무는 10여년전의 12월을 잊지 못한다. 바로 그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농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사랑의 뜨락또르들을 보내주시였다.

번쩍번쩍 빛나는 새 뜨락또르가 젊은 운전수인 자기에게도 맡겨졌을 때 리금철동무는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였다.

농장에 떼를 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에 뜨락또르의 힘찬 말동소리로 보답하리라고 그는 굳게 마음다졌다.

리금철동무는 10여년세월 뜨락또르를 제 살점처럼 아끼고 정히 다루면서 그날의 맹세를 지켜왔다.

뜨락또르이자 그자신이였고 해마다 힘차게 울린 뜨락또르의 말동소리는 당과 조국을 알곡증산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열의로 높뛰는 그의 심장의 박동소리였다.

하루치고 뜨락또르와 떨어져있는 시간이 얼마 안되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은가고 할 때면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사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계로 지어야 한다고 하시였는데 기계화초병인 자기가 쉬면 그만큼 농민들의 부담이 많아진다고 하면서 맡은 일에 후더운 땀을 바치였다.

몇해전 봄같이를 앞두고 뜨락또르의 중요부속품이 고장나게 되였다.

그것을 고치려면 많은 시일이 걸려야 했다.

그때 리금철동무는 같은 류형의 뜨락또르들이 많은 북변의 한 군에 가서 예비부속품을 구해올 결심을 내리였다.

농장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원들이 그 먼곳에 어떻게 다녀오겠는가고 하였지만 리금철동무는 봄같이전으로 무조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길을 떠났다.

며칠만에 리금철동무가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 일군들도 그의 높은 책임성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선뜻 도와나섰다.

부속품을 구한 그가 무거운 배낭을 지고 사리원시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른새벽이였다. 기기에서 농장까지는 10리가량 되였다.

시에 도착하면 차를 내보낼테니 전화를 하라는 기계화작업반장의 당부도 떠올랐지만 리금철동무는 다시 부속품배낭을 등에 지고 10리길을 걸어 작업반에 당도하였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그가 희열에 넘쳐 뜨락또르부속품을 갈아맞추던 모습을 기계화작업반원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뜨락또르운전수로 일하면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리금철동무는 농촌기계화초병들은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에 아로새기고 언제나 농장의 혁신구실을 하기 위해 애썼다.

포전 하나를 갈아도 아글타글 정성을 다하여 농장원들이 두벌손질을 하지 않게 하였고 논판에 써레를 쳐도 반듯하게 고루어놓아 누구나 감탄하게 만들었다.

자기 일에 정통한 그는 뜨락또르의 동음, 운전장치들의 미세한 작용을 놓고서도 뜨락또르의 상태를 제때에 알아맞히였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봄이면 아지랑이 피여오르는 논판을 힘차게 갈아엎고 가을이면 짐제같은 벼단들을 실어나르며 그가 사시절 새겨온 위훈을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풍년이삭들이 무르익는 미곡벌의 벼바다속에, 날이 갈수록 번모되는 문화농촌의 눈부신 모습속에 사회주의농촌테제관철의 기수가 되여 억세게 나아가는 참된 기계화초병인 그의 자랑찬 위훈도 깃들어있다.

본사기자 허 명 숙

한 녀인의 소생에 비낀 우리 제도의 참모습

청진의학대학 청진시제1인민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이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보건은 정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으며 정성은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주의보건의 속성이며 생명입니다.》

얼마전 청진의학대학 청진시제1인민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하나의 감동적인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지난 5월 사경에 처했던 락원군의 한 녀인이 이곳 병원의 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속에 건강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그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의 소생과정은 우주가 비낀 하나의 물방울처럼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과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기게 하였다.

인간사랑의 화원

한 녀성이 의식을 잃은채 이곳 병원으로 실려온것은 지난 5월 어느날이였다.

환자상태를 알아본 소화기내과 과장 박해경동무의 얼굴은 자못 긴장됐다.

수년간에 걸쳐 간질병치료를 받고있던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출장길에서 급작스레 식도정맥류출혈이 시작되였었다.

출혈이 심한데다 혈압과 맥박이 정상수치에서 훨씬 벗어난 환자는 거의 소생불가능한 최중증상태였다.

치료대책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의료일군들의 근심은 컸다. 혼수상태에 있는 환자의 혈육도, 환자와 가까운 사람도 곁에 없는것도 안타까운 일이였다.

하지만 이곳 의료일군들은 기어이 환자를 살려내고야말 결심을 안고 치료전투에 달라붙었다.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돌볼 사람이 없는 환자가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모두가 환자의 부모형제가 되여 최대의 정성을 쏟아붓는다면 기적이 일어날수도 있지 않는가?)

온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이 하나의 마음을 안고 환자치료에 떨쳐나섰댔다고 하면서 박해경과장은 그 과정에 펼쳐졌던 화폭들에 대하여 감동깊이 이야기하였다.

긴장한 협의회가 수시로 벌어지고 지혈대책, 강심대책 등 치료전투가 진행되였다. 여러 과의 의료일군들이 환자의 소생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낮에 밤을 이어 환자의 소생전투를 벌리는 속에서 수많은 의사들이 음식과 보약제들을 저저마다 가져왔다고 한다.

병원일군들은 아침마다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치료대책을 취해주는 등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아낌없는 방조를 준 사실도 무척 감동적이였다.

다른 지방의 한 녀성이 사경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가 친혈육이 된 심정으로 필요한 영양음식들을 들고 찾아오면서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썼다.

이 땅이 아니라면 과연 이 세상 그 어디에 가서 이렇듯 가슴뜨거운 광경을 목격할수 있겠는가. 그런 사랑과 정성이 명약이 되고 명치방이 되여 환자는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제발로 병원문을 나서게 되였을 때 그 녀성은 뒤늦게 찾아온 남편과 함께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고 한다.

정성의 꽃은 어떻게 피여나는가

사회주의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낳는 토양이라면 높은 의학과학기술은 그 사랑과 정성을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민음직한 자양분과도 같다고 할수 있다.

한 녀성의 소생과정과 함께 우리가 알게 된 또 하나의 기쁜 사실은 이곳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림상실천능력을 높이고 현대의학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깊이 연구하는 편바람을 일으키고있는것이였다. 박해경과장이 이번 치료전투에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은것도 이미전부터 그런 부류의 환자치료방법들을 부단히 연구해온 기초가 있었기때문이다.

그가 식도정맥류출혈치료와 관련한 소론문을 병원적인 기술학습시간에 발표하였는데 바로 그무렵에 환자가 입원하여 병치료를 받았다는 점은 참으로 시사하는바가 컸다.

실력향상의 높은 목표를 내걸고 식도정맥류출혈치료에 대하여 연구하느라 그는 수많은 의학과학기술문헌들을 찾아 연구하면서 품을 많이 들였다고 한다. 바로 그런 진지한 노력과 자세가 응당한 결실을 안아온 셈이다.

병원에서는 모든 의료일군들이 이렇게 높은 실무적자질을 소유하고 임의의 환자를 맡아도 치료를 막힘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고있었다.

모든 의사들이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의학과학기술토론회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누구나 높은 실력의 소유자로 준비하도록 경쟁바람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 병원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이비인후 및 두경부외과에 현대적인 이비인후내시경실을 꾸려놓고 환자치료에서 단단히 덕을 보는 등 성과들이 이룩되고있었다.

청진의학대학과 이곳 병원의 여러 교원, 일군들이 달라붙어 만든 의료설비를 수술에 리용하는데 인체조직에 대한 손상을 줄이고 수술목적을 정확히 달성하는데서 효과가 좋아 환자들이 기뻐한다는 이야기도 들을수록 흐뭇하였다.

이렇게 환자치료예방사업에서 자질향상사업을 중시하니 순환기내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여러 과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한다.

맨트겐과, 치과, 기능진단과들에서 꽃펴나는 수많은 미담들과 성과들속에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적보건제도를 높은 의학과학기술로 믿음직하게 지켜가려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노력이 진하게 슴배여있었다.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멸사복무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만만한 야심과 포부에 넘쳐 첨단의학과학의 봉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이런 의료일군들이 많아 사회주의대가정의 웃음소리는 날로 더욱 커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체육단에서— 본사기자 리 충 성 찍음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사업 활발히 전개

대외건설지도국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외건설지도국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지도국과 산하단위 일군들은 교육기반들에 나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후원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최근에만도 지도국의 일군들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10여점의 설비와 기재들을 마련하여 평양건축종합대학에 보내줌으로써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교육사업은 국가의 제일중대사이며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옥류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와 금제사업소의 종업원들은 대동강구역 옥류초급중학교, 락랑구역 송성소학교의 개건보수에 필요한 많은 량의 자재를 해결해주었다.

대성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에서도 대성구역 갑문고급중학교에 수많은 교편물과 건설용자재를 보장해주었다.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송화, 장산, 봉화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의해 사동구역 송화초급중학교와 모란봉구역 인흥초급중학교, 보통강구역 락원소학교의 면모는 더욱 일신되였다.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평양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보통강구역 봉화소학교의 수영장건설을 도와주었으며 중기계사업소 종업원들도 락랑구역 락랑2유치원에 교육설비를 해결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혁명적당들의 앞길을 밝혀주신 희세의 정치원로

주체53(1964)년 6월 19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력사적인 날이다. 이날이 있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불패의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으며 세계 혁명적당들은 공동의 투쟁강령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도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을 일관하게 관철하시였으며 탁월한 외교지략과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화발전과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과 세계평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습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혁명적당들은 지금도 반사회주의광풍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불어치던 지난 세기말을 잊지 않고있다.

과연 어느분이 위기에 빠졌던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는가. 돌이켜보면 그때 사회주의위업은 큰 시련을 겪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졌다.

공산당, 로동당들은 좌절감에 사로잡혀 갈길을 몰라 방황하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던 적지 않은 나라 인민들속에서도 심한 동요가 일고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는 사회주의의 보루인 우리 나라에 집중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진보적인민들과 혁명적당들은 불안과 우려를 안고 사회주의조선을 지켜보았다.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이 과연 어떤 길을 택할것인가. 사회주의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인류가 나아갈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투쟁의 길에 결연히 나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비난으로부터 사회주의사상과 리념을 수호하시였다.

주체81(1992)년 1월 3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시였다.

세계사회주의운동과 혁명적당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우리 장군님의 로작을 받아안은 진보적인류는 환희에 휩싸였다. 인류는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게 된 근본원인과 그 교훈에 대하여 명확히 알게 되였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받아안게 되였다.

사회주의에 대하여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으며 헐뜯던자들이 움츠러들었다.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그 심오성과 진리성, 과학성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급속히 보급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각이한 언어로 번역출판되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은 로작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들의 공산당, 로동당들은 로작에서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출로를 찾았다.

주체81(1992)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각국의 정당대표단들과 대표들이 평양에 찾아왔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곳곳을 돌아보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참모습과 위력을 보았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만이 인류의 리상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사회주의운동을 새로운 기초우에서 재건하여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탐독하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진짜 사회주의만 어떤것인가를 알게 된 세계 진보적정당들의 확고한 결의였으며 의지였다.

우리 나라에 온 세계 각국의 정당 대표단들과 대표들의 이러한 결심과 의지를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쌍무적 및 다무적접촉과 회담을 진행하여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론의하도록 하시였다. 드디어 그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자면 주체의 사회주의리념을 구현하여야 하며 새로운 공동의 투쟁강령이 있어야 한다는 공통된 리해에 도달하게 되였다.

주체81(1992)년 4월 20일 평양에서는 우리 당의 주동적인 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세상에 발표되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평양선언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재건을 위한 혁명적인민들과 당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은 혼란상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진군을 개시할수 있게 되였다.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당들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하지만 모든것이 순탄한것은 아니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은 계속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새로운 방향에서 진행하는데서 해답을 기다리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혁명적당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미룰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섰다.

주체81(1992)년 10월 10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혁명적당들의 국제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옳바른 당건설지침을 가지지 못하여 좌왕우왕하던 진보적인 당들은 승리의 기치, 보검을 받아안았다. 세계 혁명적당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말그대로 《주체의 당건설교과서》,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의 강령적지침》이라고 격찬하여마지 않았다. 많은 나라들의 공산당, 로동당들과 진보적정당들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평양선언의 기치밑에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존엄떨치게 되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에서는 전환이 일어났다. 인류자주위업은 일시적인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계 혁명적당들에 공동의 투쟁강령과 혁명적당건설과 활동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주신것은 세기와 더불어 영원할 특출한 업적이다.

하기에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들에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신 당건설의 거장, 희세의 정치원로로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본사기자 리 학 남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재일본조선청년동맹과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에서는 전세대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유산들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하며 동포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조선사람으로서의 근본을 잊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명맥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하는것은 새 세대 동포청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지금 각지 총련조직들에서는 애국위업의 전위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앞장선 단위로 되기까지

최근년간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사이다마현본부산하 서무지부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지난해말에 진행된 조청원들의 대중운동인 《이어》집중전을 총화하는 모임에서 이 지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예의 단상에 오른 지부일군들의 감회는 깊었다. 이 지부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제구실을 하지 못하던 단위였다. 조청 제23차대회에서 현본부산하 지부들가운데서 유독 이 지부만이 표창을 받지 못하였었다.

그때 지부일군들은 머리를 들수 없었다. 모든 조청조직들이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포청년들의 지향을 풀피워주는 참다운 청년단체, 힘있고 약동하며 매력있는 청춘의 활무대를 꾸리기 위해 활약하고있는데 왜 우리 지부는 가새걸음을 치고있는가.

심각한 교훈을 찾은 지부일군들은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떨쳐나섰다. 그들은 넓은 지역에 퍼져사는 청년들을 찾아가 선전사업을 즐기차게 벌리였으며 모든 반위원회들을 핵심청년들로 보강하고 반들사이의 경쟁의 방법으로 그 역할을 높이였다. 한편 조청원들을 이끌고 한생을 총련사업에 바친 동포로인들의 집에 찾아가 그들이 걸어온 애국의 력사도 배우게 하였으며 총련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와 도쿄조선제3초급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도 활발히 벌리였다.

동포사회의 미래는 밝다

오사까총련조직에서 마련한 청년축하모임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강남희로인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올해 스무살이 되는 20여명의 지역청년들속에 자기의 여섯 손자들중 맏이도 속해있어 다녀오는 길이다.

해마다 동포청년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열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것은 동포사회의 오랜 관례이다.

로인이 축하모임장소에 들어서니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처녀들, 의젓한 몸가짐을 한 젊은 남성들의 훤훤한 모습이 첫눈에 안겨왔다.

일본땅에 살아도 민족성을 꿋꿋이 고수해나가려는 그들의 지향이 옷차림과 몸가짐에도 그대로 비껴있었다.

동포사회앞에서 다진 애국의 결의는 또 어떠했던가.

《어엿한 조선청년으로 키워준 동포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청춘시절을 빛내이겠습니다.》, 《꼭 우리 학교 교원이 되겠습니다.》,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끓고있는 희망과 포부는 서로 다르나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삶을 빛내이겠다는 결의는 꼭같다. 이역의 어지러운 풍토에 오염되지 않고 참된 조선민족의 아들딸들로 억세게 자라나는 동포청년들의 모습에 로인은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조국과 민족, 동포사회와 결부시키는 그들의 결의를 듣던 로인에게는 문득 텔레비존화면에서 보았던 일본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술에 만취되여 손님들에게 썩은 닭알을 던지고 욕언을 내뱉는 망나니들…

그것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생활양식으로 하여 비관과 타락의 웅덩이에 빠진 가련한 인생들의 광기적인 몸부림이였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미덥고 믿음직한가. 애국위업의 앞길에 아무리 시련이 덮쳐와도 그들은 선대들이 그러했듯이 씩씩하게 헤쳐갈것이다. 동포사회의 미래는 밝고 밝다.

흥그러워지는 마음안고 로인은 씨엉씨엉 걸음을 다그쳤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

로씨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기증식이 13일 로씨야 뜨리뽀찌호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관 관장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증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달되였다.

관장은 도서들을 전달받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조관계발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로씨야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기증받은 도서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의 선대수령들과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하여, 날로 발전하는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것이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에티오피아인사 담화 발표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에티오피아인사가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드미트리 포스펠포는 8일 담화에서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힌 력사적리정표이라고 하면서 지난 4월 제3차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의 채택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되였다, 이것은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결단과 노력에 의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니가루 타그나제우는 6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 기울이신 로고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도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일각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드시 실현하시려는 김정은각하의 결심과 의지는 참으로 대단하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올해 정초부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으시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시였으며 두차례의 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조선민족모두에게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시였다.

세계는 조선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도래한데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판문점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하고있다.

머지않아 조선은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다시금 드러난 부정선거원흉의 몰골

남조선에서 보수패거리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련속 폭로되고있는 속에 이번에는 이자들이 선거때마다 감행한 여론조작범죄의 진상이 드러나 각계의 규탄여론을 고조시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선거부정사건인 《드루킹》사건에 대해 한사코 물고늘어지면서 그것을 여론화하여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살길을 열어보려고 발악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데 의하면 보수패거리들은 지난 10여년간 《드루킹》사건에는 대비도 되지 않는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여론조작범죄행위를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얼마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소속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일하였던 한 인물이 상부의 지시밑에 자기가 지난 2006년부터 벌려온 각종 여론조작행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토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그는 지난 2006년의 지방자치제선거때부터 《한나라당》의 여러 선거운동본부들에서 인터네트관련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자동입력프로그람을 리용한 여론조작범죄를 지속적으로 감행했다.

2007년의 《대통령》선거과정만 놓고보아도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에 동원된 그는 의딴 곳에 사무실을 꾸려놓고 상부에서 제공해준 100여개의 인터네트가입자이름으로 리명박여도를 지지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게재하였다. 그는 자기의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토설하면서 BBK주가조작사건에 대한 《무정직인 글들을 밀어내라.》는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것과 자기가 여론조작을 위해 인터네트에 올린 글들에서 오자가 반복된것은 자동입력프로그람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기때문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러고 리명박여도의 당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글들이 인터네트에 오르면 자기가 인차 그것을 반박하는 글들을 게재하군 하였는데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선거가 끝난 후 집중적으로 삭제했는데도 미처 다 없애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2007년 12월에 작성되여 현재까지 인터네트상에 남아있는 글들이 《한나라당》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게재한것이 옳다고 하면서 당시 여론조작활동을 하는 조직이 또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한나라당》에 이어 《새누리당》시기에도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인터네트상에서 자동입력프로그람을 사용하는 여론조작행위가 감행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얼마전에는 박근혜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하였다고 하는 한 인물이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당시 여도를 당선시키기 위해 《새누리당》이 감행한 여론조작범죄행위를 폭로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여론조작놀음에 동원된자들은 박근혜여도에게 유리한 여론을 류포시킬데 대한 지시가 떨어지면 자동입력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짧은 시간에 1천여건에 달하는 글들을 중복게재하였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여 여론조작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그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알수 없지만 명백한것은 여론조작놀음에 참가한 자들중 적지 않은 대상들이 박근혜여도의 집권이후 청와대에 들어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비렬한 모략과 더러운 술책으로 권력의 자리를 찬탈하고 명줄을 부지해온 역적패들의 추악한 몰골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지난 시기 정보원과 경찰, 기무사령부 등 권력기구들을 총동원하여 선거부정행위들을 저질렀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다싶이 이자들은 나중에는 당내에서까지 여론조작범죄를 조직적으로 감행하였다. 보수패당의 이 용납 못할 죄악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현대과학기술까지 도용하여 여론조작행위를 감행한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범죄의 소굴이며 부정선거, 협잡선거의 원흉이다.

이 특대형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보수패거리들을 단죄규탄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있다. 《드루킹》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도입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며 《국회》앞에서 단식통성까지 벌린 《자유한국당》것들이 그에 비교도 할수 없는 자들의 엄청난 선거부정사건을 놓고서는 침묵을 지키는데 대해 남조선 각계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특대형선거부정사건을 지지른 범죄자들이 《드루킹특검》에 대해 고아댄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뻔뻔스러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보수패거리들이 감행하여온 여론조작행위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특대형범죄라고 하면서 사건이 일부 개별적성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역당이 직접 나서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조직적인 범죄인것만큼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개인이 지지른 《드루킹》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단식까지 하면서 특검을 요구했는데 자들의 조직적인 불법여론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런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당국에 제출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평하고있다.

권모술수로 권력욕을 채우고 온갖 부정협잡행위로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반역《정권》을 유지해온 남조선보수패당의 더러운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들출수록 썩은내만 풍기는 부정부패당, 범죄의 소굴인 《자유한국당》을 단호히 청산해버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리 성 호

습근평주석 인민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데 대해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최근 산동성을 현지료해하면서 인민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경제 및 사회발전의 혁신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갈수록 높아가는 인민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민대중의 요구는 정부의 사업방향이며 인민의 복리증진은 발전의 근본목표라고 하면서 그는 인민들의 리익을 도모하고 인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반테로투쟁

로씨야련방안전국이 최근 크라스노야르스크시에서 국제테로조직들과 련계를 가지고있던 종교단체를 적발하였다.

수사과정에 11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이 종교단체는 공공장소들에서 테로를 실교하였으며 테로분자들을 모집하고 수리아와 아프리카나라들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물가인상

일본에서 5월에 도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 뛰여올랐다.

특히 에네르기가격이 많이 비싸졌다. 12일 이 나라 중앙은행이 밝혔다.

중국에서 밀수범죄와의 투쟁 강화

중국의 세관총서가 12일 밝힌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5개월동안에 전국의 세관초소들에서 1 600여건의 밀수범죄가 적발처리되였다.

이것은 세관초소들사이에 협동작전을 벌려 폐기물과 농산물, 마약, 총기류 등의 밀수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이라고 한다.

이 기간 압수된 폐기물량만도 95만 5 800톤에 달하였다.

고대유적 발굴

몽골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불간도에서 고대유적들을 발굴하였다. 발굴과정에 6세기와 7세기의것으로 추측되는 고대성벽, 무덤, 석화, 돌조각상 등 약 270개의 유적이 나타났다.

유적들은 고대몽골의 력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수리아를 위협하는 대규모군사연습

얼마전 이스라엘군이 강점한 골란고원에서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리였다. 며칠동안 진행된 군사연습에는 중장비들이 동원되고 예비역들도 참가하였다.

이스라엘군부는 연습이 2018년 훈련계획의 일환으로서 사전에 계획된것이며 무력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습이 《정상적》이라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적인 간판에 불과하다. 군사연습은 명백히 수리아를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침략전법을 련마하는데 목적을 둔것이다.

지난 5월초 이스라엘군은 강점한 골란고원의 주민들에게 피난처들을 준비하며 경계태세를 유지할것을 지시하였다. 리유는 수리아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다는것이였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선전을 통해 대규모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워보려 하고있다.

현재 수리아의 정세는 안정되여가고있다.

지난 5월말 로씨야국방상은 수리아정세발전이 긍정적인 추이를 띠고있다, 동부고타와 홈스에서 무혈정화가 이룩되고 디마스끄교외주민지대가 《이슬람교국가》로부터 해방된 후 이 나라의 정세는 개선되였다, 피난민들이 귀가하여 평화적인 생활을 해나갈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여가고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수리아대통령은 정부가 7년간의 투쟁에서 거의 승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씨야 RT텔레비존방송과의 회견에서 서방과 그들의 꼭두각시들이 테로를 지원하고 자국에 보다 많은 테로분자들을 들이밀거나 정치적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시도하고있다고 하면서 만일 그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호전분자들은 1년내에 격파되였을수도 있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고있는 극단주의세력이 패하고있으므로 자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은 곧 그들이 공포에 떨고있다는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수리아정세에 대한 옳은 평가이며 수리아위기가 지속되여온 원인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라고 할수 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의 정세안정을 바라지 않는다.

리유는 무엇인가.

우선 반체자주를 지향하는 수리아의 정세가 안정되면 이 나라와 이란을 비롯한 지역나라들의 련대성과 협조가 강화되고 저들이 중동의 맹주로 될 꿈을 실현하는데서 또 하나의 장애가 형성되기때문이다.

다음으로 수리아가 골란고원을 되찾기 위한데 총력을 집중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테로분자들과 극단주의세력에게 무기를 대주는 한편 군사적도발을 일삼으면서 수리아정세를 악화시켜왔다.

그런데 수리아의 정세흐름은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이스라엘은 초조해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린 속심은 수리아를 위협하여 테로분자들이나 극단주의세력에게 힘을 주고 력량을 보강할 기회를 주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골란고원에 무력을 증강하자는데 있다고 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골란고원은 제3차 중동전쟁시기 이스라엘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수리아의 령토이다.

수리아가 그 일부를 되찾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대부분지역은 이스라엘이 강점하고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물원천지이며 중요한 군사적요충지인 골란고원을 영원히 타고앉으려 하고있다. 강점한 골란고원에서 《지방리사회》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곳에서 저들의 법적, 행정적통치를 실시하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군사연습을 벌린것은 수리아가 령토수복꿈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수리아의 문앞에서 강화되고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적위협책동은 호전되여가는 수리아정세를 또다시 악화시키려는 위험한 행위이다.

본사기자 손 소 연

여러 나라들에서 교육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국가와 사회발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교육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타는 범아프리카교육부문회의에서 교육은 인간의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프리카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면 교육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4월초 에티오피아수상 아비이 아흐메드 알리는 취임연설에서 교육사업발전에 힘을 넣을것이라고 하였으며 가나대통령 나나 아꾸포—아도는 교육은 공업무문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현실속에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새 세대들을 실천경험을 지닌 유능한 전문가들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말하였다.

꼬트디봐르대통령 알라싼 우아따라는 2020년까지 15개의 학교를 건설하고 23개의 기술 및 전문학교를 개건함으로써 나라의 지식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할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중국은 세계일류급대학 및 일류급학과를 건설하여 자국을 교육강국으로 전변시킬 목표를 내세우고 교육사업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 5년간 교육의 균형적발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여 26만개의 학교를 건설하고 172만명의 교원을 보충하였으며 3월현재 전국의 81%에 달하는 2 379개의 현에서 의무교육발전의 기본균형을 실현하였다.

란자니아에서는 4월 중순에 발표된 교육발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교원양성사업에 꾸준히 힘을 넣으며 이와 함께 교육의 질과 학교들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교과서와 학습장보장을 위한 대책도 취하고있다.

만마에서 학생들의 론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새 교과서들을 편찬발행하였으며 봉쁘에서는 2020년까지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고 학교들에서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더 많은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고등교육발전에 힘을 넣어 실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있다.

지난 4월 로씨야정부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출을 2000년이래 4배이상 늘이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교원, 연구사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대학들에는 외국학자들도 리용하는 실험실과 연구센터들이 꾸려졌다고 한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앞으로 더욱더 적극화될것이다.

말라리아 박멸노력

나미비아와 앙골라가 13일 말라리아를 박멸하기 위한 공동전략을 발표하였다.

전략에 따라 두 나라는 국경지역에서 모기서식지들을 없애고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며 주민들속에서 말라리아의 위험성에 대한 해설선전을 강화하는 등 전염병근절사업에서 협력하게 된다.

나미비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5월까지의 기간에 2만 4 000명의 말라리아환자가 등록되였다고 한다.

마약압수

호르바쯔까정찰이 13일 남부국경지역에서 마약을 실어나르던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여 420여kg의 마리후아나를 압수하고 밀수업자를 체포하였다.

지난해 체스꼬에서는 1.1t의 마리후아나가 압수되고 메탐페타민을 만들어내던 264개의 제조소들이 적발되였다.

벼락피해

인디아 서부벵갈주의 여러 지역에서 12일 벼락에 맞아 10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였다.

5월에 전국의 5개 주들에서 무더기비와 벼락에 의한 피해로 250여명의 사망자와 400명이상의 부상자가 났다.

인플레률 증대

미국에서 5월에 인플레률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 증대되였다.

12일 미로동성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181096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